

정기열 의장

전국청년위 사업분과위원회와 진솔한 소통

경기도의회 정기열 의장(더불어민주당·안양4)은 12월 12일 오후 5시 경기도의회 의장접견실에서 전국청년위원회 사업분과위원회 이태열 위원장 등 위원들을 만나 진솔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사진>

정기열 의장은 이날 의회를 방문한 이태열 위원장을 비롯한 사업분과위원회 위원들을 환대하며, 경기도의회 3선 의원과 의장으로서의 의정활동 경험을 공유하며, 정치 지망생 후배들에게 따뜻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정 의장은 "실패를 통해 얻은 경험은 소중한 것으로 실패를 했을 때 좌절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하면 반드시 기회는 온다"며 "비전과 소신을 갖고 꾸준히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이태열 위원장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준 정기열 의장에게 감사하다"며 "오늘 자리를 통해 청년들의 정치참여가 확대되고, 전국청년위원회 사업분과위원들이 좋은 성과를 얻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강주형 기자 iou8686@naver.com



지방분권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 열려

지방분권 분야 개편을 위한 경기도의회 헌법개정을 위한 지방분권위원회(위원장 김유임) 제5차 전체회의가 12월 13일 도의회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지방분권위원회 김유임 위원장(경제과학기술위원회·고양5) 주재로 열린 제5차 회의는 먼저 국회 개헌특위 지방분권분과 자문위원인 김성호 부위원장(자치법연구원 부위원장)이 국회 내 개헌기류를 전달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김성호 부위원장은 "실질적 지방분권의 실현을 위해 마련한 국회 개헌특위 지방분권분과 개헌안에 대해 일부 의원의 비판적 시각이 존재하지만 각급 자치단체·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인식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어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어서 지방분권을 홍보하는 다큐멘터리 제작 보고회가 있었다. 위원들은 그 동안 제대로 된 지방자치가 어려웠던 구조적 원인을 파헤칠 필요가 있고,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당위성만 강조하기보다 일반국민이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이 남의 일이 아닌 곧 나의 일이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과 직결된다는 점을 잘 인식할 수 있도록 현장 사례를 좀 더 추가할 것을 주문했다.

김유임 위원장은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은 이데올로기적 이념 대립의 문제가 아니고 주민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시스템"이라는 점을 강조할 것을 당부했다.

강주형 기자 iou8686@naver.com



이재준 의원

이재준·최재백 도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조례' '공약이행평가'



최재백 의원

경기도의회 이재준(더불어민주당·고양2) 의원, 최재백 의원(더불어민주당·시흥3)이 12월 13일 (사)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주관하는 '2017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의 좋은조례 분야 우수상을 수상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지난 2009년부터 매년 전국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참다운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지방의원의 공약이행과 조례 제정 활동의 우수사례를 발굴해 약속대상을 수여해 오고 있다.

이재준 의원이 수상한 좋은조례 분야의 경우 올해 200여명의 의원을 대상으로 입법의 시급성,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지역발전에 대한 영향, 독창성 등을 기준으로 치열한 심사를 거쳐 최종 52명(광역 19

명, 기초 21명)을 선발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 행정심판 비용 지원 조례'를 제정해 도지사의 행정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제기한 도민이 전부 승소하는 경우 도에서 최대 480만원까지 지원토록 함으로써 경기도민의 권익향상과 행정의 적법성 확보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건설교통위원회 최재백 의원은 '공약이행평가'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 조례는 도민이 행정청의 위법한 행정처분을 다투기 위해 부담한 모든 비용을 자기부담으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국 최초로 행정청이 그 비용을 부담토록 함으로써 정당한 권리구제 절차에서 조차 비용을 보상받지 못했던 불합리를 개선했으며, 경기 안성시

와 서울시의 조례 제정은 물론 패소자 비용 부담 원칙을 담은 행정심판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는 데도 영향을 미쳤다.

이재준 의원은 "그동안 도민들이 정책의 혜택을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입법 활동을 하고자 노력해왔는데 약속대상을 수상하게 돼 매우 영광"이라며 "앞으로도 지방자치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조례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최재백 의원은 "뜻깊은 상을 받게 돼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당선된 날부터 주민들과 약속한 공약들은 꼭 이행하겠다는 각오로 하나 하나 챙겨왔던 것에 대해 좋은 평가를 받게 돼 매우 기쁘다"며 수상 소감을 밝혔다.

강주형 기자 iou8686@naver.com

시원하게 터진다. 답답했던 경기북부길이 시원하게 뚫립니다. 상패-청산(국대도 3호선) 9.85km, 장흥-광적,가남-상수(국지도 39호선) 12km, 설마-구읍,적성-두일(지방도 371호선) 14.37km, 오남-수동(국지도 38호선) 8.13km, 광암-마산(지방도 364호선) 11.32km. 경기 북부 5대 도로로, 경기도가 경기북부의 미래를 바꿉니다. 문의: 031-120